



강소기업을 키우자

송현승 오르디자인 대표

침단기술부터 진통공예까지... ‘신입의 기치’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 역할이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능과 사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을 제품으로 구현하고 소비자의 경험까지 설계하는 역할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을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술 개발이 끝난 뒤 외형을 입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구조와 사용성, 생산 방식 등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디자인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디자인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생산환경을 디자인기업의 제품 기획 및 설계 역량과 결합하는 협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예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전통적인 제작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소비자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광주에 기반을 둔 디자인 전문기업 오르디자인(대표 송현승)은 산업제품부터 생활용품, 전통공예 상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디자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르디자인이 진행한 프로젝트에는 수질관리 장비와 환경 관련 제품, 스마트 모빌리티, 공기질 관리 제품 등 기술 기반 산업제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생활용품과 가구, 공예상품 등으로 작업 영역을 넓혀 제품의 기능과 사용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한음채’ 잇단 수상...기술·전통 제품으로

스마트모빌리티·환경장비부터 생활·공예상품까지 영역 확장 눈길

지역 제조·공예기업과 협업 통한 제품 경쟁력 높이는 역할에 주목



송현승 대표

환경에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예코 피스와 협업한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다.

도심 속 호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제품은 수상레저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제품이다.

수질관리와 레저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으면서 디자인 과정에서 수상 환경과 이용자의 사용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오르디자인은 제품의 형태뿐 아니라 수상 환경에서의 활용성과 이용자의 접근성, 제품 구조 등을 고려해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기술적인 기능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형태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제품은 2024 대한민국 굿디자인(GD)에 선정된 데 이어 편집 디자인어워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드 본상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열린 CES 2025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했다.

오르디자인의 작업 범위는 첨단기술 제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 공예기술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찻잔 세트 ‘한음채’도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한음채’는 광주지역 공예사업자의 전통 기술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한 ‘스타공예 상품개발 및 양산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공방과 협업해 개발했다.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현대적인 조형을 결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공예가 가진 소재와 제작기법을 살리면서 현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와 디자인을 적용했다.

한음채는 2025년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산업용 제품과 전통공예라는 서로 다른



‘한음채’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현대적인 조형을 결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25년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다.

분야에서 디자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두 제품은 적용 분야와 제작 방식이 크게 다르다.

하나는 자율주행과 수질정화 기능을 결합한 산업·환경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공예기술을 활용한 생활제품이다.

하지만 기술이나 소재가 가진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제품 형태로 구현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오르디자인이 진행해온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제품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이 나타난다.

환경장비나 산업용 제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사용 장소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형뿐 아니라 이동과 보관, 유지·관리, 부품 교체 등 실제 사용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전동 이동수단 관련 디자인을 진행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노면청소 장비와 공기질감기 등의 제품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생활제품 분야에서는 가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처럼 오르디자인이 첨단기술 제품과 전통공예 상품을 함께 다루는 것은 제품의

분야보다 기술과 소재, 사용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제품이 완성된 뒤 외관을 다듬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제품 기획부터 사용성, 생산성, 브랜드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제조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디자인기업과의 협업이 기술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다.

송현승 오르디자인 대표는 “통찰력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고객 사업의 정체성과 핵심가치, 핵심역량을 찾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과 가구 설계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로봇이 작업자 보호”...한전KPS, 피지컬AI 실증

생성형AI·로봇릭스 결합
발전정비 현장 투입 속도

한전KPS가 생성형AI와 로봇릭스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AI’ 기반 로봇을 발전정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KPS는 올해 KOSPO영남파워에서 두 차체에 걸쳐 ‘피지컬AI 기반 밀착형 안전 어시스트 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PoC)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발전정비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발전소 안전관리 시스템이 CCTV 등을 활용해 작업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한전KPS가 개발 중인 시스템은 로봇이 작업자 곁에서 직접 움직이며 안전과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연에 활용된 4족 보행 로봇은 특정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따라다니면서 공구 등을 운반하고, 생성형AI 기반 음성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정비 절차와 안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발전소 내부처럼 소음이 큰 환경에서



〈좌측 위〉피지컬AI 로봇과 작업자가 작업 전 안전수칙 및 절차 등을 의사소통하는 모습. 〈우측〉피지컬AI 로봇이 작업자를 추종하는 모습. 〈좌측 아래〉작업자 위험상황(헬멧 미착용)에 대해 피지컬AI 로봇이 경고를 올리는 모습.

도 작업자와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적용했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경고를 발생시키는 등 현장 안전관리 기능도 선보였다.

이는 AI가 작업자를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 과정에 참여해 위험을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동행형 안전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전KPS는 이번 기술개발의 핵심 목표를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능동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차와 2차 시연 등 단계별 실증을 통해 실제 발전정비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발전정비는 고온·고압 설비와

중량물, 복잡한 작업환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AI와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지원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정비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PS는 향후 반복적인 기술검증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정비 분야에서 피지컬AI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여름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 연장

신제품 크루젠 GT Pro 등 2개 이상 구매 시 상품권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오는 9월 26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크루젠 GT Pro’와 ‘마제스티X 솔루스’, ‘마제스티 솔루스 EDGE’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GS칼텍스 X 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최대 6만원)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실시한 사계절 타이어 9종 비교 평가에서 마제스티X 솔루스와 마제스티 솔루스 EDGE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루젠 GT Pro’는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로,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RR, 회전저항) 2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동급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갖췄다.

‘마제스티X 솔루스’는 금호타이어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를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으로 최고급 세단과 수입차 등 고성능 차량을 위한 플래그십 타이어다. 고분산 정밀 실리카 컴파운드를 적용해 승차감과 제동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기존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눈길 제동력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타이어 흠 소음을 분산시키는 딥플 설계 기술과 최적의 패턴 해석 시스템을 통해 정숙성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함께 대상 제품에 포함된 ‘마제스티 솔루스 EDGE’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로 비대칭 패턴 디자인 및 고강성 센터블록 설계를 통한 일관된 주행 안정성, 소음 저감 기반피치, 블록 구조 안정화 설계로 구현한 뛰어난 정숙성, 고효율 실리카 레진 컴파운드 적용으로 강화된 사계절 제동 성능이 특징이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문 상무는 “전문 매체의 비교 테스트에서의 우수한 평가를 계기로 더 많은 고객이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기술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의 금호’라는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및 타이어프로플러스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